지역의 인재를 세계의 인재로 **국립인천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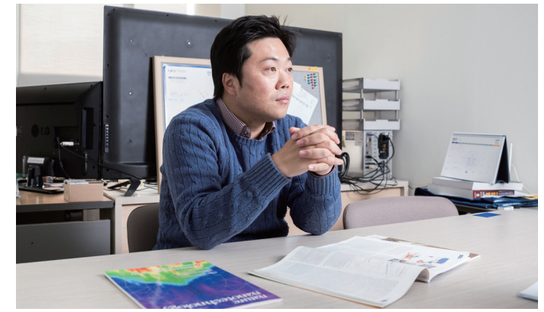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NEWSLETTER Vol.68

2016 Winter

FOCUS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다
SKETCH 나눔을 위한 착한 여행 – 네팔
INTERVIEW 인천대학교 더 큰 둥지를 향해

여러분들의 애정은 국립인천대학교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무통장 후원하기 농협 1325-01-000611 예금주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ARS 후원금 서비스 060-703-1212(통화당 3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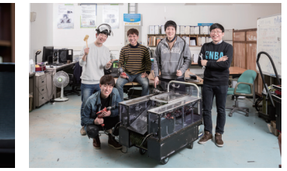
04

10

12

20

24



32

INU ISSUE

04 FOCUS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다
08 SKETCH
나눔을 위한 착한 여행 – 네팔
12 ZOOM IN
성공적인 첫 단추,
IPP사업의 눈부신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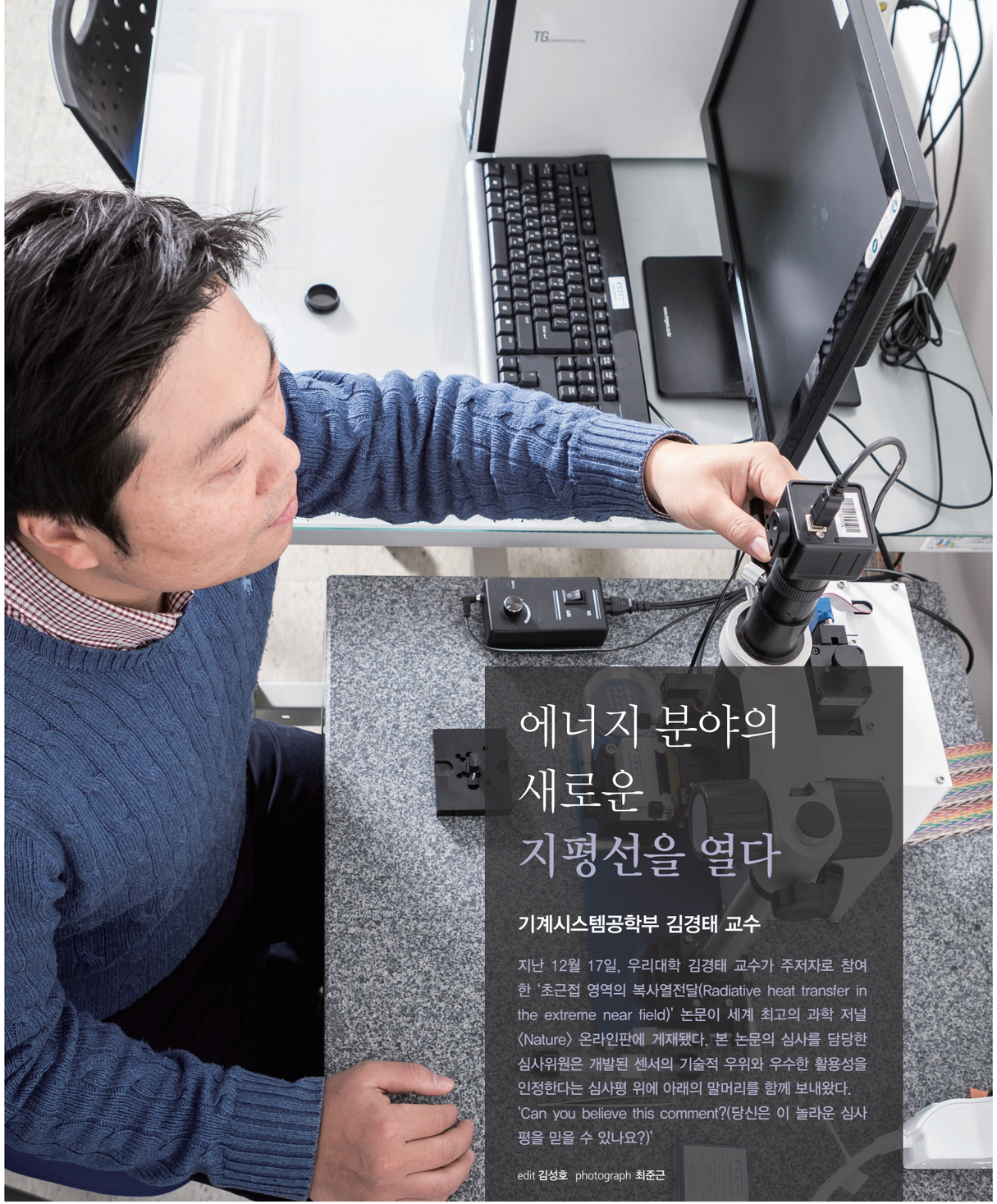
INU REPORT

20 INTERVIEW
인천대학교 더 큰 둥지를 향해
22 PEOPLE
모교 출신 교수 3인방
인천대학교를 이야기하다
24 COLUMN
주체적인 일, 좋아하는 일, 행복한 삶
26 SPOTLIGHT
문장을 나누고 삶을 이야기하다

WITH I&U

28 TOGETHER 낯선 땅에서 전해온 따뜻한 나눔
30 GLOBAL ESSAY 삶의 품격이 높아지는 기회의 땅, 중경
32 INU CLUB 환경을 지키는 우리대학 대장장이들
34 INSIDE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의 중심축
36 NEWS INU 주요뉴스
40 THANKS TO 발전기금 현황

인천대학교 소식지 2016년 겨울호 통권 제68호 **발행일** 2016년 2월 **발행인** 최성을 **발행처** 인천대학교 대외협력홍보팀 / 032-835-924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홈페이지 www.inu.ac.kr **기획/편집디자인** 웨스트코(주) 032-423-1988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다

기계시스템공학부 김경태 교수

지난 12월 17일, 우리대학 김경태 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한 '초근접 영역의 복사열전달(Radiative heat transfer in the extreme near field)' 논문이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 〈Nature〉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본 논문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위원은 개발된 센서의 기술적 우위와 우수한 활용성을 인정한다는 심사평 위에 아래의 말머리를 함께 보내왔다. 'Can you believe this comment?(당신은 이 놀라운 심사평을 믿을 수 있나요?)'

edit **김성호** photograph **최준근**

세계 최초 초근접 에너지 현상 규명

지난 12월 17일, 세계적인 과학 저널 〈Nature〉에 『Radiative heat transfer in the extreme near field』 주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게재되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전 늘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박사과정 때, 좋은 지도교수님을 만나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연구원 시절에 맘에 맞는 팀원과 함께 즐겁게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좋은 성과를 얻게 됐을 때, 기쁨과 동시에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게 됐죠.(웃음)

운이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성공보단 실패에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핵심적으로 연구했던 분야는 아주 작은 스케일, 즉 나노(nm)의 열전도 현상이에요. 나노 스케일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기와 에너지가 조금 다른 거동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이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면 열에너지 분야에서 성능적으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스케일이 너무 작기 때문에 관측할 수 없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박사과정 7년 동안 가장 작은 스케일에서 열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수백 번의 실패를 경험했죠. 결국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현재 〈Nature〉에 게재된 논문의 이론을 입증하는 핵심 베이스가 됐죠.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학부 시절 당시, 학사경고를 세 번 맞았어요. 제적을 당할 뻔했는데, 아버지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 '아들 녀석 공부 시키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시곤 제적을 면할 수 있었죠. 군대를 다녀온 후, 처음으로 대학에서 공부다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컴퓨터와 기계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본체에서 열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궁금해했죠. 그래서 지도교수님께 이 분야의 연구를 더 하고 싶다 말씀드렸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나노 및 원자 스케일의 에너지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 현재까지 오게 됐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하셨는데, 기초과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것이 흥미롭네요.

요즘엔 과학의 영역이란 틀이 깨지고 있어요. 더 새롭고, 유용한 연구를 위해선 학문 간의 융합은 필수죠. 기계공학 전공자가 전기, 재료 공학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규명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논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세계 최초 『2nm 단위의 초근접 영역 복사 에너지 전달 현상』 논문은 '이정표' 같은 연구라는 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나노 스케일에서 에너지 전달 현상을 계측하는 장비를 개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장비를 통해 결과를 도출한 거죠. 우선, 나노 스케일에서 에너지 전달과 변화 과정에 대한 맵핑(mapping)이 가능해졌어요. 즉, 열전도율과 효율을 분석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거죠. 예를 들자면 원자를 지닌 모든 물체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 대비 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효율이 증폭되죠. 다시 말해 초근접 영역의 복사 에너지를 분석해서 빛과 열을 베이스로 한 모든 물체의 효율과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인 거죠. 앞으로 새로운 나노 에너지 개발 분야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나노 스케일 열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개발

현재 활용되고 있는 태양전지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렇죠. 태양전지는 태양으로부터 생성된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반도체 소자에요. 현재 태양전지의 효율은 10% 남짓입니다. 대부분의 열이 전도 과정이나 저장 과정에서 소멸해 버리죠. 이 부분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 근접 영역의 열전도 현상이에요. 매체 간의 거리를 좁히면 열 활용도는 급격하게 증폭되죠. 현재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기술이지만 향후 20년 안에 이 기술이 보편적으로 보급될 거라 믿어요. 누군가가 이 기술을 소자로 만들면 아마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요?(웃음)

실패는 성공을 만드는 소중한 뿌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세 편의 〈Nature〉 논문에 주 저자로 참여하셨는데요. 쉽게 이룰 수 있는 성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문의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모든 연구는 '현재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물음과 함께 시작됐어요. 특히, 에너지 전달 분야는 아직 밝혀지지 않거나, 규명되지 않은 논제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연구하는 팀원들과 함께 남들이 어려워서 시도하지 못한 연구를 먼저 규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만큼 고민의 시간이 길었죠. 다급한 결과를 원하기보단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좋은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어요.

박사 때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에너지 분야 연구를 진행해오셨어요. 연구 과정 중 어려웠던 점이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나요?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연구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론적으론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됐는데, 실험 결과에서 입증할 데이터가 분명치 않았죠. 그래서 하나의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반복 실험을 하게 돼요. 하나의 작은 데이터에 확신을 갖기 위해 한 달간 같은 실험을 밤새 반복하기도 하죠. 끊임없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 일. 그게 가장 고된 순간들이었어요.

실패를 넘어서기 위한 교수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실패와 친해야 하고, 실패를 사랑해야 하고, 실패를 좋아해야 한다.' 제가 후배와 제자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노하우에요. 한번 실패할 때마다 안 된다고 포기해 버리면 다음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포기하는 순간 다시 원점이 되는 거죠. 수많은 실패는 성공을 만드는 소중한 뿌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를 하시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도 궁금해요.

연구자로서 가장 즐거운 순간은 당연히 제 연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중에게 알려질 때죠. 연구 과정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말하자면,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할 당시였죠. 졸업이 12월에 예정돼 있었는데, 제가 준비한 논문을 완성시킬 딱 하나의 실험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한 달간 밤새 실험에만 몰두했었죠. 끝내 데이터가 도출되지 않아 졸업을 연기해야 할까 낙심하던 중, 하루를 남기고 극적으로 데이터 값 도출에 성공했어요.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이었는데, 소리를 지르고 연구실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졸업도 무사히 할 수 있었고요. 물론 그 당시에도 참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웃음)

최고의 연구 지원과 인프라

우리대학에 부임하신지 만 1년이 다 되셨네요. 우리대학에 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약 3년간의 연구과정을 마치고 작년 3월, 우리대학에 신임교수로 부임하게 됐어요. 사실 한국으로 돌아와 많은 학교를 사이에 두고 고민을 했어요. 그간 독자적으로 혹은 팀 단위로 오랜 시간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 지원과 인프라'였어요. 인천대학교는 모든 것을 실력으로 평가해요. 학벌이나 지연, 나이를 떠나 교수의 역량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주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되시나요?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점이 교수로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폭넓은 연구비 지원부터 진공실, 시약장, 실험 장비, 넓은 공간의 연구실까지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또, 융합연구그룹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 불문, 교수끼리 함께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 달라야 한다

교수님의 좌우명이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절대 엘리트가 아니에요. 학부 시절, 성적과 출석이 형편없어서 학사경고를 세 차례나 받았을 만큼 문제아였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까지 어쩌면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방황도 했고, 좌절도 있었죠. 다시 마음을 잡기까지 저에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은 '자기반성'이었어요. 전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과 발맞추려고 더 노력했죠. 그리고 조금씩 성과를 얻기 시작했을 때, 언젠가 이 노력을 알아봐 주는 혹은, 함께 할 수 있는 시기와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었어요. 좌우명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건 아니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 달라야 한다.' 이것이 지금도 제가 깊게 품고 있는 한 문장이에요.

두 학기 강의를 진행하셨어요. 우리대학 학생들과의 수업은 어떠세요?

한마디로 너무 좋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학부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학생들도 눈에 띄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인들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해버린다는 것?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요…'라고 말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문제아였던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계속 노력했기 때문이죠.

어떤 제자를 양성하고 싶으신가요?

대학의 역할이란 단순히 학생들에게 졸업장만 주는 것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능을 알아보고 실력을 키워 인재를 만드는 일. 그게 바로 대학의 참 역할이에요. 저 역시도 제자들이 오늘이 아닌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목표가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대부분 박사과정과 미국 연구원 시기에 구상을 했던 연구들이에요. 물론 최근의 연구 성과는 인천대학교의 지원과 연구 인프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제게 목표가 있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현상을 우리대학의 우수한 교수님, 제자들과 함께 〈Nature〉에 게재하는 일이에요. 이 목표 역시,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겠죠. 문제 될 건 없어요. 전 성공보단 실패에 익숙한 사람이니까요.(웃음)

김경태 교수 〈Nature〉 논문 게재 현황

2013_Nature
Heat dissipation in atomic-scale jun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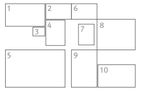
2014_Nature Nanotechnology
Electrostatic control of thermoelectricity in molecular junctions

2015_Nature
Radiative heat transfer in the extreme near field

나눔을 위한 착한 여행 – 네팔

RECONSTRUCTION OF NEPAL EARTHQUAKE

7박 9일간 네팔에서 진행된 우리학생들의 봉사활동은 폐허가 된 현지의 메마른 땅 위에 진하게 피어오를 희망의 씨앗을 선물했다. 보다 넓은 세상으로 떠난, 보다 특별했던 네팔 봉사활동을 소개한다.



1. 네팔 출국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
2. 네팔 KMC 환경부 및 네팔 지질공학협회와 MOU 체결
3. 서명을 통해 꾸준한 상호교류를 약속
4. SNS을 통해 네티즌에게 전달받은 기부 서적
5. 카트만두 지역의 지진 피해 현장
6. 포카라 지역 현지 학생들의 환영식
7. 한국문화와 언어 공유를 위한 학교 방문
8. 네팔 어린이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전달했다
9. 히말라야 일대의 토양비화 조사
10. 트리부반대학을 방문해 학문 교류 진행

"이번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과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피해가 조속히 복구돼 네팔 국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이번 7박 9일간의 봉사활동이 우리학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국제적 경험이 되길 희망합니다."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사업단 **신은철 단장**

"SNS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이번 네팔 봉사활동에
힘을 보태주셨어요. 책, 학용품, 의류 등 그분들이 보내주신
정성 깃든 물품들은 네팔 어린이에게 큰 희망이 됐습니다."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강태영**

네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도시 재생 지원 사업

교육부의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CK-II)으로 선정된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 사업단'(단장 신은철 교수)은 1월 8일, 2차년도 동계방학 국제 교육 및 실무 연계 프로그램 발대식을 개최하고, 네팔 대지진으로 인해 파손된 사회 기반 시설 복구 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5일부터 7박 9일간 일정으로 우리대학 도시과학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파견했다. 이번 동계방학 네팔 도시 재생 지원 사업은 네팔 환경부와 국제업무교류협정(MOU)를 체결하고 향후 지속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약속했다. 네팔을 방문한 우리학생들은 도시과학대학 교수 및 학생들이 기부한 지진 피해 복구 성금을 피해 지역에 전달하는 한편, 네팔 지질학회를 방문해 네팔의 지질 및 환경 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현지에서 한국문화 체험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지진 피해로 인해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 생활하는 네팔 어린이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전달했다.

More here

성공적인 첫 단추, IPP사업의 눈부신 성과

인천대학교 취업률 전국 국 · 공립대 2위

지난 2015년 4월, 우리대학이 고용노동부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이하 IPP사업) 시범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약 10개월이 지났다. 취업경쟁력 향상과 취업률 상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우리대학은 2015년 공시취업률 69.6%, 전국 국 · 공립대학 가운데 서울대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취업률 상승을 위한 우리대학의 가장 핵심 사업인 IPP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제2기 성공적인 준비를 통해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다져본다.

edit **이한별** photograph **최준근**

IPP란?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대학교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1학기 : 16주 / 8학점) 현장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 현장실습 제도로서 기존 인턴, 현장실습 등 단기현장 체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교에서의 학업학기'와 전공과 관련된 '산업현장 근무학기'를 통합시킨 산학협력 교육모델이다.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 'IPP사업'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사업은 기존의 방학을 이용한 단기실습에서 탈피해 학기·방학을 이용한 장기현장실습제로, 기업과 학생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산학연계 교육제도다. 2015년 4월 28일, 우리대학은 IPP일학습병행제 시범대학으로 확정, 정부로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최대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지난 5월 20일 IPP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학생면담·IPP사업 교육을 통해 9월 4일, 총 120명의 학생이 IPP사업 실습생으로 확정됐다. 실습생들은 인천 지역 소재 52개의 유수한 대·중소기업과 매칭 되어 현장 실습을 진행했으며, 약 4개월 동안 경험과 실무를 쌓았다. 그리고 120명의 실습생 중 25명이 실습했던 기업에 취업으로 연계되는 성과를 이뤘다. 실습생뿐만 아니라 참여 기업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1-2개월의 단기실습으로 인수인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이 IPP사업으로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면서 실습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진행해 업무효율성이 증진됐기 때문이다. 현재도 IPP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 제2기부터는 더 다양하고 탄탄한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IPP 참여 현황

참여기업	매칭학생	채용연계
52개	120명	25명(20.8%)

ZOOM IN

01 — 1월 19일 진행된 IPP실습생 성과보고회
02 — 52개 기업에 120명의 학생 IPP사업에 참여했다
03 — 최우수상을 수상한 건축공학과 4학년 조정아 학생
04 — 홍선표 IPP사업단장 인사말
05 — 최성을 총장과 국회의원, 고용노동청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15년 공시취업률 2위 기록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대학이 이뤄낸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총 120명의 실습생의 20.8%에 해당하는 25명이 실습하던 기업으로 채용이 확정됐으며, 2015년 공시취업률 역시 69.6%,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서울대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 2015년 공시 주요 대학 취업률

학교	취업률
고려대	74%
성균관대	73.7%
서강대	72.8%
연세대	72.3%
서울대	71.2%
인천대	69.6%
인하대	69.4%

우리대학이 IPP사업의 성공적인 첫 단추를 채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탁월한 산학협력 인프라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에 있다. 먼저 우리대학은 지식정보단지, 남동산업단지, 송도테크노파크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 인접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해 있어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IPP사업단은 535회에 걸쳐 다양한 기업에 방문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참여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포스코건설, 인천테크노파크, ㈜호반건설, ㈜태성환경연구소 등을 비롯한 52개 유수한 대·중소기업들이 제1기 IPP사업에 참여해 우리대학과 손을 맞잡았다. 학생들에게는 사업과 더불어 참여 기업들에 대해 홍보하며 기업 인식에 대한 폭을 넓혀 대·중소기업이 가진 선입견을 해소했다.

또한 IPP사업의 체계적이고 원만한 운영을 위해 'IPP-PD교수'제도를 도입, 선정된 전담 교수 4명이 실습생과 참여 기업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상황에 따른 판단과 유연한 대처가 가능했고, 주기적인 현장실습 및 현장일지 작성과 기업 평가로 IPP사업의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2019년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 운영비 4억 원을 우리대학 예산에서 확보했다. 실습생들은 학교와 국가의 든든한 지원 아래 자신의 가능성과 적성을 확인할 기회를 얻었다.

모든 학과가 참여하는 제2기 IPP사업

10개월간의 여정이 끝나고 지난 1월 19일에 열린 제1기 IPP사업 성과보고회에서는 실습생들과 참여 기업 대표, 전담 교수, 지역 국회의원 등 IPP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성과를 발표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습을 통해 얻은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실습생들은 한껏 들떠 각기 다른 곳에서 쌓았던 경험과 기억들을 나눴다. 기업 대표들은 성과보고 중, 우리대학 학생들의 매우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언급하며 미래가 기대되는 인재들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기업에서 쌓은 경험들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실습생들 또한 단순한 실습을 넘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IPP사업을 통해 귀중한 경험을 선사한 우리대학과 참여 기업에 감사를 전했다.

우리대학은 제1기 IPP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제2기의 시작을 알렸다. 제2기부터는 대학의 모든 학과가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와 기업에서 교육을 주도하는 '일병행학습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 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신국가자격증'제도 등을 도입해 우리대학의 IPP사업이 더 경쟁력을 갖게 된다. 아울러 이공계열, 상경계열 등 14개 학과만이 제1기 IPP사업에 제한돼 참여했으나, 올해 제2기부터는 인문계열, 예체능계열의 학과도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대학 모든 학과가 현장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대학과 학생, 기업이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산학연계 교육모델, IPP사업.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대학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 향후 IPP사업 일정

월	기수	내용
1월~2월	2기	IPP모집 및 매칭
5월	3기	IPP 모집 홍보시작
6월	2기	실습 종료
7~8월	2기	계절학기 운영. 3기 IPP 모집 및 매칭
11월	4기	IPP 모집 홍보 시작
12월	3기	실습 종료

대학과 기업을 위한 국제적 인재 양성 목표

IPP사업단장 홍선표

Main Interview

제1기 IPP사업을 마치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 우선, 학생들의 IPP사업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에게 4개월 장기실습은 전공과 연계된 현장을 체득하는 단계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설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총 120명의 실습생들 가운데 25명의 학생이 취업연계 됐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깊어졌고, 우리대학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참여 기업들이 다음 기회에 더 많은 학생들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학생과 기업의 반응은 어떤가요? ● 실습생들의 반응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학습과정에서는 느끼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됐고, 자신의 전공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기업 측에서도 우리대학 학생들의 뛰어난 재량과 적극적인 자세에 오히려 도전을 받아 서로 Win-Win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IPP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 인천지역의 발전입니다. 지역의 발전은 대학생들의 지역 사회 진출로 이뤄집니다. 우리대학 학생들은 IPP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로 진출,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생각은 전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대학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기업과 지역을 동반성장 시키는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IPP사업은 앞으로 4년간 지속될 것이나 올해부터는 다른 형식으로 발전될 예정입니다. '일학습병행제'로 학생들의 교육을 학교와 기업이 연계해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론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NCS(국가직무표준) 활용으로 능력중심 사회를 지향하는 '신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학교와 기업에서 일정 교과과정을 완료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재 역량의 기준점을 얻을 수 있고, 채용이 수월해집니다. 더 발전된 IPP사업을 위해 이미 16개 기업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작성해 협력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 탄탄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Mini Interview

실습생 인터뷰

01 — 조정아(건축공학과 4학년_ ㈜호반건설 4개월)
02 — 박은아(화학과 4학년_㈜블리스팩 4개월)
03 — 박상덕(신소재공학과 3학년_㈜한라캐스트 4개월)

어떻게 IPP를 알게 됐나요? ● 조정아 : 학과사무실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현장경험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IPP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박은아 : 사업설명회를 통해 알게됐습니다. 또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었습니다. 박상덕 : 우연히 현수막을 보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실습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맡으셨나요? ● 조정아 : 저는 CS(고객만족 ; Customer Satisfaction)부서에서 고객관리, 완공된 아파트 관리, 관리사무소 선정 등 업체를 관리하고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공사현장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박은아 : 해외 마케팅 업무를 맡아 회사 선배님들을 서포트했습니다. 박상덕 : 제가 있던 곳은 LG전자의 협력사였어요.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제조회사로 저는 고객사와 소통하고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 조정아 : 제가 있었던 CS 부서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부터 해결까지의 과정을 여러 현장마다 비교하며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게 큰 배움을 주었습니다. 박은아 : 사람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어떤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성적이 아닌 성과를 내기 위한 업무였기 때문에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박상덕 : 기업분위기와 회사생활, 그리고 동료 및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물론 전공지식도 양껏 쌓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IPP사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 조정아 : 기업에서 실습생들을 보는 인식 자체가 달라요. 4개월로 꽤 긴 시간이다 보니 같은 직원으로 생각해줍니다. 이렇다보니 4학년들에게는 취업 연계로의 기회가 획득되고, 3학년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설계를 더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아 :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턴과 같은 단기적인 실습을 통해서도 경험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실습으로 기업에 녹아들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은 또 다른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박상덕 :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취업을 할 때나, 제 삶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1

02

전공과 연계된 현장을 체득하는 단계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설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03

새 출발을 앞둔 당신에게

스스로가 원하는 삶이라면
스스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생애의
첫 날입니다.
내일을 향한 당신의 한걸음을
응원합니다.

제3기숙사 BTL사업비 352억원 확보

우리대학이 2016년 정부 예산에 수용인원 1,000명의 제3기숙사 BTL사업비 한도액 352억을 확보함에 따라 부족했던 기숙사 공간이 확충되어 거점 국립대학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우리대학 김응철 대학건설본부장을 만나 2019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되는 제3기숙사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edit **유서진** photograph **최준근**

인천대학교

더 큰 둥지를 향해

우리대학 인재들을 위한 제3기숙사 건립

우리대학은 지난 2010년 인천전문대학교와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격히 학생 수가 늘어났고 국립대학 전환에 따라 학교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위상만큼 타 도시의 학생들이 많이 몰렸는데 이 학생들을 수용할 기숙사가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증가된 학생 정원의 6.7%(956명) 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죠. 그래서 늘 기숙사 증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대학의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대학에 미래를 맡기고 찾아온 인재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학교 차원의 노력 중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사업이었죠. 그렇게 국고지원 B씨(Build-Transfer-Lease)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BTL 사업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BUILD)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에 이전(TRANSFER)하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방식을 말합니다.

정부고시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국고 지원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매립지 위에 세워져서 다른 부지에서의 건립보다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업비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익성도 타 대학에 비해 적은 편이라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도 없었어요. 정부고시 계획에 따라 사업 설계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두 번의 공고 끝에 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95점을 받아야만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행히 그 업체가 95점을 받고 시공사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국고지원 대학 선정을 위해 정부를 설득하는 등 힘든 일이 많았어요. 쉽게 사업에 선정됐다면 지금의 감동도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험난한 과정을 극복하고 결국 우리 대학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기에 사업단장으로서 감회와 포부가 더욱 남다릅니다.

◀ 2019년 완공 예정인 제3기숙사 조감도

제3기숙사 건립 개요

방식_ BTL사업 (민간투자 공공공사)
연면적_ 18,000㎡
규모_ 지하 1층, 지상 15층 500실 2개동
착공 예정일_ 2016년 착공 예정
완공 예정일_ 2019년 2학기 완공 예정

30%(총 3,086여 명)의 학생 수용률 보유

우선 현재 기숙사 입사 경쟁률이 3대1 정도 되는데 높은 경쟁률 탓에 학점이 낮은 학생들은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숙사가 지어지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줄고 학생들이 비용적인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가 되겠네요. 보통 대학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이 30% 정도가 되면, 기숙사에서 생활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현재 제1기숙사를 포함해 올해 완공 예정인 제2기숙사, 그리고 제3기숙사가 완공되면, 우리대학은 약 30%(총 3,086여 명)의 학생 수용률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기숙사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또, 대학 평가에서 기숙사 증설로 인한 대학 등급 향상도 기대할만합니다. 평가 등급이 높아지면 국가의 지원도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욱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 특히 이번에 건립되는 제3기숙사는 사용료가 높은 여타의 기숙사와 달리 임대료의 75%를 교육부가 지원함에 따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게 됩니다. 제2기숙사의 임대료가 70%였던 것에 비교하면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든 셈이죠. 아울러 모든 방들이 2인 1실로 건립될 예정이어서 기숙사 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인 1실… 다양한 편의시설 조성

기존 기숙사보다 연면적 및 각 실의 면적이 훨씬 커졌습니다. 지금 기숙사는 네 명이 함께 쓰는 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답답할 거예요. 앞으로 지어질 기숙사는 훨씬 넓어져서 이런 단점이 보완됨은 물론이고 식당, 편의점, 컴퓨터실, 독서실, 헬스장, 세미나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조성됩니다. 모든 실이 2인 1실로 구성돼 565실, 총 113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노력 수반

우리대학이 국립법인대학이긴 하지만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번 BTL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대학보다 먼저 BTL기숙사 사업을 시행했던 학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행착오가 많고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아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잘해내고 싶지만 전례가 없기 때문에 부담감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우리학생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교 출신 교수 3인방

인천대학교를 이야기하다

그들이 말하는 '모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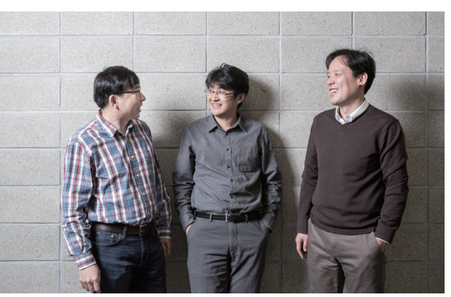
인연이란, 문득 마주친 관계가 아닌, 계기와 원인을 가지고 뗄 수 없는 연이 지속될 때 쓰는 말이다. 이곳에 '모교'와의 인연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 교단에 오른 세 명의 교수가 있다. 바로 전기공학과 허진 교수, 해양학과 김장균 교수, 수학과 문병수 교수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대학 이야기를 들어보자.

왼쪽부터

김장균 교수_ 해양학과
(인천대학교 생물학과 90학번)

문병수 교수_ 수학과
(인천대학교 수학과 97학번)

허진 교수_ 전기공학과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87학번)



Q. 간단한 소개와 함께 우리대학에 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김장균 2015년 8월에 새롭게 부임한 김장균 교수입니다. 우리대학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2001년 미국 University of Connecticut에서 박사과정을 이수, 연구원 생활을 했습니다. 작년, 우연치 않은 기회에 우리대학에서 제가 그동안 연구해오던 분야와 딱 맞는 채용 소식이 들려서 곧바로 지원하게 됐죠. 사실, 인천대학교가 아니었다면, 한국에서 교직 생활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모교로 부임한다면 학생들에게 더 와 닿을 수 있는 강의와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으로 오게 됐습니다.

문병수 저는 97학번 수학과 출신입니다. 미국 Buffalo State College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 포항공대에서 1년간 연구소 생활을 했습니다. 학부생 시절부터 '내가 만약 교수가 된다면, 무조건 인천대학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임 없이 제 '모교'로 돌아오게 됐죠.

허 진 87학번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연구 센터장을 약 8년간 했어요. 그리고 울산대학교에서 8년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각종 학회나 세미나에서 우리대학 교수님들을 통해 학교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늘 모교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작년 8월 새롭게 부임하게 됐어요.

Q. 어제와 오늘, 인천대학교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김장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사립대학교 시절이었죠. 정원도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국립대로 전환도 됐고, 규모나 인프라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을 이뤘죠.

문병수 일단 캠퍼스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요.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 여건이 훨씬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대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온 대학 구성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 진 제가 다닐 당시엔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대학가에 내재되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일까? 그때에 비해 훨씬 안정되고 교육에 대한 열의도 높아진 것 같아요.

Q. 우리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김장균 우리대학에 부임하고 이제 반 년이 지났네요. 많은 경험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대학이 품고 있는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학생들은 목표가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들에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병수 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늘 새로움을 추구해야 해요. 이 모든 원동력은 '젊음'에서 나오죠. 국립대 전환 이후, 우리대학은 늘 새로움을 향해 바쁘게 달려가고 있어요. 연구 성과나 학생들의 눈에 띄는 대외적 성과만 봐도 알 수 있죠.

허 진 저 역시도 발전 가능성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우리대학은 국내 유일무이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만큼 교수님들의 역량과 학생들의 열의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Q. 모교에서 이루고 싶은 연구성과가 있다면?

김장균 현재 해양 생태와 친환경 양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적조 현상을 자원화해서 친환경 양식 시설을 설비하는 연구 프로젝트죠. 우리대학은 해양산업에 특화된 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우리대학은 해안과 접한 좋은 지리적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문병수 물(Water Wave)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쓰나미의 발생 원인과 운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모델링 하는 연구분야죠. 현재 한국에는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가 없어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이곳 '모교'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뤄내고 싶습니다.

허 진 자동차에 관련된 전기전자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자동차 흐름이 점차 전기자동차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학생들을 이 분야의 우수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우리대학은 국내 유일무이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죠

산업경영공학과 김철홍 교수의 추천도서 「일의 발견」

일과 행복, 그리고 삶의 의미는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직접 그것을 찾아 나서야만 한다. 사회로 나가기 전 준비단계인 대학시절, 우리는 진정한 일의 의미를 알고 발견해야 한다.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위해.

edit **최진성** photograph **최준근**

주체적인 일, 좋아하는 일 행복한 삶

일과 우리의 삶 ● 우리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취업일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일은 우리의 삶에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고, 어학연수를 가는 것처럼 좋은 기업으로 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의 발견'은 일의 본질적 의미를 알기 쉽게 옮겨 놓았습니다. '일의 발견'은 총 3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1부는 '일의 의미와 역사'로 일의 역사적 개념과 일에 대한 우리의 모순된 감정, 일과 관련된 가치들과 노동윤리를 탐색합니다. 2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로 이어집니다. 일과 자유의 문제에서 출발해 고용주들이 고용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분투하죠. 고용인들은 일과 삶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권을 갖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3부는 '일과 삶'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일 ● 이 책을 읽다 보면 '주체적인 삶을 살 것인가'와 '수동적인 삶을 살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일을 통해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공예가는 도자기 하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꽃을 그릴 것인지, 잎을 그릴 것인지, 또한 반죽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이 과정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장에선 분업화로 바뀝니다. 고용주에 의해 정해진 틀에서 자신이 맡은 일만 수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동적인 일은 주체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일의 요소가 아닌 주체입니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일을 통해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유익하게 해줍니다.

좋아하는 일, 보람된 삶 ● 저는 우리대학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합니다. 일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 보람된 삶을 사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부딪혀 보면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는 겁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보세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존재하는 사회 안에서, 자신의 일을 즐기며 성공하는 우리대학 학생들이 되길 응원합니다.

깊고 진한 울림 – 책 ● 패션은 10년이 지나면 촌스러워지지만, 책은 오래될수록 깊고 진한 울림을 지닙니다. 그만큼 책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언제든 도움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책. 우리의 생활에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분이란 평소 자신이 읽고 싶었던 책들을 생활 곳곳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책장에만 놓여있던 책을 생활공간 곳곳에 비치함으로써 책과 익숙해지고 읽어보게 되는 거죠. 조금씩 읽게 되는 책은 어느 순간, 습관화가 되고, 우리의 일상에 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학생들도 책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발전된 미래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발견

저자 조안 B. 시울라 / **역자** 안재진 / 다우출판 / 2005.04.25

문장을 나누고 삶을 이야기하다

웹 소설가 **이지혜 작가**
경제학과 06학번

웹소설이 급성장하고 있다. 전체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출이 해마다 2~3배씩 뛰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 웹소설 전체 매출은 800억 원을 넘어섰다. 1년에 '억대' 수입을 챙기는 웹소설 작가도 이미 수십 명이다. 우리대학 동문 이지혜 씨도 네이버에서 유명한 웹소설 작가다. 그녀의 작품이 네이버에 업데이트 될 때마다 많게는 1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쉽고 재미있는 문장으로 독자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지혜 작가 출간 목록

2015년	현재, 네이버 웹소설 [나의 달콤한 마녀] 연재 중.
2014년–2015년	네이버 웹소설 공모전 수상작 [그 모델의 사생활]연재 완료.
2013년–2014년	다음 스토리 볼 및 예스24 e연재란에서 [화랑애사] 연재 완료, 출간 완료.
2013년	북큐브 공모전, [붉은 빛에 취하다]라는 로맨스판타지로 수상.
	[에일린 Aileen] 으로 작품명 변경.
	출간, [열대야 : 뜨거운 밤], [사막의 나라, 물의 신녀], [옥황상제 막내딸 설화], [화랑애사]

마음이 끌리는 일에 열정을 쏟다

이지혜(경제학과 06학번, 28) 작가는 3년 전만 해도 소위 말하는 취준생 이었다. 졸업 직후 중견기업 인턴으로 잠시 일하기도 했지만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또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중 우연히 '제1회 네이버 웹소설 공모전'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보는 순간 '해봐야겠다'란 생각과 함께 그날 새벽 공모전에 낼 글을 단숨에 써 버렸죠. 1화를 올리고 조회수를 보니 14명이 읽었더라고요.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엔 5분마다 한번 씩 들어가 조회 수를 확인하다 '재미있어요'라는 댓글을 보니 갑자기 힘이 나더라고요. 누군가 제 글에 호응을 해 준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거든요. 이후 아무 생각 없이 글만 썼던 거 같아요."

2013년 3월, 웹소설을 쓰기 시작한 그는 그 해 세 권의 책을 각각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했다. 1회 공모전에서는 순위에 밀려 당선을 놓쳤지만 그의 글을 주시했던 출판사들의 제의로 곧 종이책이 나왔다.

이어 2014년에는 북큐브 공모전에서 '붉은 빛에 취하다'란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15년에는 '제2회 네이버 웹소설 공모전'에서 '그 모델의 사생활'로 대상을 받았다. 현재 7권의 책이 출간됐으며 네이버에서 여러 작품을 연재하고 있다.

독자들과 실시간으로 공감하고 소통

이 작가의 소설 장르는 로맨스다. 그는 거창한 것은 아니더라도 2~30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독자들은 그의 글에 대해 캐릭터가 쉽게 와 닿고, 트랜디 하며 글을 통해 자주 위안을 얻곤 한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고정 독자층이 깊게 형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공모전 당선 작가이니 만큼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치도 높은 편이다.

"제 블로그를 찾아와 댓글을 남기거나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독자들의 반응이 제겐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보내주신 마음이기에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설레죠. 작업 초반에는 '이걸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앞섰지만 지금은 제 글을 읽어주는 독자들이 있기에 더 잘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상매체를 향한 꿈과 도전

이 작가는 요즘 배우거나 알고 싶은 것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 독자들에게 인정받고 스스로도 최선을 다하려다 보니 생긴 고민이다.

"그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드라마를 본다거나 뭔가를 배우면서 요즘 트렌드를 읽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글을 쓸 때도 가급적이면 적용하려고 하고요."

단기간, 돛을 단 듯 순항을 이어오고 있는 그이지만 그에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또 다른 목표가 있다. 자신이 쓴 소설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져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만 해도 120여 명에 달해요. 최근에는 플랫폼 자체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여서 웹소설 시장이 계속 확장 되고 있죠. 시장이 커지다 보니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2차 창작물 제작도 활발한 편이고요. 귀여니 소설처럼 해외 수출을 위한 협업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자신의 일에 대해 말할 때면 눈빛이 초롱해지는 그녀. 앞으로 그가 어떤 무대에서 어떤 작품으로 얼마나 설레는 행보를 걷게 될지 자못 기대가 된다.

> 지금은 제 글을 읽어주는 독자들이 있기에 더 잘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낯선 땅에서 전해온 따뜻한 나눔

"나눔은 마음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죠. 더불어 살아야 하고, 내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때문에 나눔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와카이 슈지

한국닛켄(주) 대표

낯선 땅 인천을 모국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있다. 일본 출신이지만 인천이 제2의 고향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하는 와카이 대표. 그는 우리대학 학생들은 위해 2003년, 2009년 그리고 2013년에 이어 2015년, 1000만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기부했다. 빨간색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그의 회사에서 '나눔' 이야기를 들어본다.

edit **최진성** photograph **최준근**

외국인 처음으로 '모범상공인'으로 선정

와카이 대표의 고향은 일본이다. 그는 1974년 사업 관련 차 처음으로 인천에 발을 디뎠다. 그는 사업 시장을 둘러보던 중,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한다. 좋은 기계가 있어도 기계에 성능을 전부 발휘하지 못 했던 것. 이유는 간단했다. 제대로 만들어진 Tool Holder의 부재.

1987년까지도 외국 제품에 의지해야 했던 우리나라를 위해 그는 인천에서 Tool Holder를 생산하기로 결심한다. "그 시절, 인천은 본격적으로 세계의 문물이 들어오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었죠. 세계와 소통하는 인천에서 저는 가능성을 보았고, 이 가능성이 성공으로 이뤄지길 바랐어요. 또한, 여러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해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인천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했고, 저는 동구 만석동에 1987년 한국닛켄(주)을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인천과 와카이 대표의 인연은 시작됐고, 회사 창립과 함께 시작한 인천 생활도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는 인천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2009년에는 인천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외국인 처음으로 '모범상공인'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77살이 된 그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인천의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시작된 인연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와카이 대표. 그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왜 인천대학교일까? 그와 우리대학의 인연은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시작된다. 당시 글로벌 교육을 꿈꾸던 김학준 前 인천대학교 총장은 와카이 대표에게 행정대학원 입학을 권했다. 더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와 사업자 역시 교육자라고 생각했던 그는 흔쾌히 승낙했다. 행정대학원을 다니며 새로운 인재들을 만났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꿈이라는 도화지에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죠. 학생들이 꿈을 펼치고 자신이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학에서 알아갔으면 합니다. 제가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발전기금을 통해 학생들이 곳곳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고마움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는 최근에도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그리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발전기금은 와카이 대표의 바람대로 더 좋은 교육 환경과 연구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렇게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는 Tool Holder처럼, 우리대학과 와카이 대표는 학생들을 위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어져 있다.

우리대학 인재 채용에 앞장

"나눔은 마음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죠. 더불어 살아야 하고, 내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때문에 나눔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나눔의 철학은 그의 회사에서도 나타난다. 직원들을 위한 복지와 상여금 제도. 회사를 생각하고 직원들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그렇게 오롯이 전달되고 있다. 현재 한국닛켄(주)는 매년 인천대학교 학생들을 채용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큰 꿈을 그릴 도화지를 제공해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앞으로 와카이 대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내실 있고 뿌리 깊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 한다. '100'이 아닌 '120' 그 이상을 향해.

Tip box

Tool Holder :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장치

삶의 품격이 높아지는 기회의 땅, 중경

교환학생 체험수기

안녕하세요. 전자공학과 10학번 오승재입니다.
저는 중국 중경 사천외국어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학기를 마치고 왔습니다. 중경이 간직한 고유의 맛과 멋, 그리고 그곳만의 문화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write **오승재**(전자공학과 10학번)

삶의 휴식과 여유를 품다

중경은 중국 4개의 직할시(북경, 상해, 천진, 중경) 중 하나로, 중국에서 가장 발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기회의 땅'이라고 불립니다.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와 국가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날씨는 40도가 넘는 무더운 여름과 춥고 습한 겨울이 특징입니다. 중경은 무더운 여름이 되면 낮잠 시간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경은 일보단 사람들의 휴식과 건강을 배려해 주는 생활문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부분의 회사, 음식점 등이 점심시간을 갖습니다. 2시쯤에 식사를 하러 가면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옆에서 의자를 여러 개 붙여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문화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어느새 저도 그들의 옆에서 낮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서히 그들의 문화에 스며들어갔습니다.

중국학생과 1:1 상호 학습교류

사천외국어대학교 1년 교환학생 생활의 1학기와 2학기는 정말 다르게 보냈습니다. 1학기는 사천외국어대학교 주변의 맛과 멋을 느꼈고, 2학기는 대학교 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사천외국어대학교는 교환학생을 위해 본과 수업 외 어학수업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외국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과 수업은 학과의 시간표에 따라 정해지며, 어학수업과정은 오전에 진행됩니다. 어학수업 외에 본과수업은 모두 본교 학생들과 함께 듣게 됩니다. 즉, 그들의 수준에 맞춰 강의가 이뤄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수업의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북경어에 비해 말의 억양이나 사투리가 저에겐 익숙하지 않았고, 전공 교재로 수업을 하다 보니 책을 읽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수업을 듣는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조를 이뤄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다 보니 점차 수업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교내 활동도 어학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 마련한 푸다오(辅导, 과외 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학생과 1:1 상호 학습교류를 할 수 있는데, 함께 여행을 다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강의를 듣다보니 어느새 많이 성장한 저의 중국어 어학 실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경에서의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두려움은 흥미와 재미로 바뀌었고,
교환학생 생활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요정이 사는 공간 '구체구'

중경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중국의 유명 관광지에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중에서도 으뜸인 '구체구'를 다녀왔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황산을 가지 가보지 않고는 산을 말하지 말고, 구체구를 가보지 않고는 물을 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만큼 산과 물이 절경을 이루는 곳인 '구체구'는 관광객이라면 꼭 가봐야 하는 최고의 여행지 중 한 곳입니다. 처음 '구체구' 여행을 결정했을 때, 중경에서 가까우니 가볼 만하다고 중국인 친구들이 추천해 줬습니다. 버스로 12시간 거리인 여행지를 상대적으로 가깝다고 여긴다는 것에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12시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찾은 '구체구'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황룡'에서 처음으로 고산지대에서의 호흡곤란을 경험해 보았고 3000m이상의 고산지대의 정상에 도달해보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CHINA

발전을 향한 지름길, 도전

인생에서 3번 온다는 기회 중에 한 번이 교환학생 생활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저를 발전시키는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경에 가기 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경에서의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두려움은 흥미와 재미로 바뀌었고, 교환학생 생활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고, 존중해야 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주변의 사람들이 교환학생을 고민한다면 저는 반드시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의 열정과 노력을 믿고 교환학생의 기회를 열어주신 인천대학교 국제교류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을 지키는 우리대학 대장장이들

왼쪽부터 **김연성**(메카트로닉스공학과 4학년)
김태영(기계 · 로봇공학과 3학년)
유진동(기계 · 로봇공학과 3학년)
김의겸(기계 · 로봇공학과 4학년)
임종근(기계 · 로봇공학과 3학년)

기계시스템공학부 로봇 동아리 IMECA

'뚝딱 뚝딱' 거친 기계음이 멈추는가 싶더니, 일순간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인기척에도 아랑곳없이 떠들고 만들기를 반복하는 그들이 보인다. '남자라면 로봇이죠.'라고 말하는 그들. 유쾌한 다섯 남자가 전하는 IMECA의 대장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edit **최진성** photograph **최준근**

대회 수상 경력

2015년 제11회 교내 창의적 종합설계 대상

창의적 종합설계·거점센터 경진대회 금상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한국산업기술진흥위원장상

2011년 창의적 종합설계·거점센터 경진대회 창의상

제7회 교내·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은상

제7회 교내·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금상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우수상

2010년 창의적·종합설계 거점센터 경진대회 대상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한국산업기술진흥위원장상

2008년 제7회 로보콘코리아 아이디어상

2007년 제2회 교내·창의적·종합설계 경진대회 대상

1

2

1. IMECA 동아리가 개발한 '유회숙'
2. 2015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대상

20년 역사를 품은 대표 로봇 동아리

1995년 창단된 IMECA는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대학 대표 로봇 동아리다. IMECA는 'Idea'와 'Meca'가 결합된 '창의적인 생각의 발상지'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이름이다. 그래서일까? IMECA는 수년간 교내외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로봇동아리로서 확고한 경쟁력과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

모든 결과의 중심엔 그들만의 끈끈한 팀워크와 소통이 자리한다. 창의적 발상의 출발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는 아이디어 회의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혼자선 생각할 수 없었던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곤 해요. 개인이 만든 아이디어의 뼈대 위에 팀원들의 살이 더해져 완성도 높은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때문에 아이디어 회의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일과입니다." 동아리 회장을 맡은 유진동 학생의 말이다.

'재난과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기계 만들기'라는 철학 아래 제품 제작에 임하는 그들의 열띤 회의는 오늘도 멈출 줄 모른다.

'2015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대상

IMECA는 '2015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애를 안았다.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로 기계공학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수상을 꿈꾸는 대한민국 대표 경진대회다. 그들은 기름 회수 로봇을 출품, 심사위원들에게 탁월한 독창성과 활용성을 인정받았다. 로봇에게 붙여진 이름은 '유회숙'. 좀 더 세련된 이름이 있었겠지만 만장일치로 '유회숙'이란 이름에 동의했다. "유회숙은 유회수기(누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장치)에서 착안한 이름이에요. 로봇은 사람들의 일상과 밀접하고 친근한 존재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정겹고 포근한 이름을 붙였죠."

그들이 제작한 유회숙은 각종 선박사고에 의한 누출된 기름을 원격 조정에 의해 무인 자동으로 회수한다. '사람과 환경을 위한 기계'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철학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유회숙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 대회 준비와 학업을 병행해야 했기에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이론을 세우고, 설계 – 제작 – 실험까지 그들은 특유의 끈끈한 팀워크로 거의 모든 일상을 함께 했다. 또한, 개개인의 장점을 살린 업무 분담으로 더욱 탄탄한 유회숙을 만들어 갔다. 대회가 끝난 후, 이들은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한다. "대회에 나가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컸어요. 하지만 유회숙이 물 위를 누비며 유수를 제거하는 것에 성공했을 때, 저희는 어린아이처럼 서로를 부둥켜 앉고 방방 뛰었죠. 이 녀석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게 해준 유회숙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최첨단 시대를 이끌 인재

평소엔 장난기 많은 개구쟁이들이지만 제품을 제작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다. 환경을 지키고 사람의 안전을 위한 로봇을 탄생시키는 노력은 기름 때로 물든 그들의 손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IMECA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전공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았어요. 저희는 앞으로 보기만 해도 뿌듯하고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요. 제품을 만들어가면서 팀원들과 함께 만들어 왔던 추억은 우리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탄생된 후에 느끼는 뿌듯함과 감동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물론 사람의 안전과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어야 하겠죠?"라며 서로를 마주 보며 웃어 보인다. IMECA 학생들의 꿈은 실생활에 유용한 창의적 제품들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엔지니어다. 기름 때로 짙게 물든 그 손이 다가올 최첨단 테크놀로지 시대를 빛낼 중요한 원동력이 되길 응원한다.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유회숙'의 실제 작동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SCAP 남상민 부대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의 중심축

UN ESCAP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은 UN 사무국의 지역지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발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다자간 경제협력을 도모하여 회원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dit **김성호** photograph **이주용**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도모

ESCAP은 아태지역(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태평양과 접한 지역)의 환경·사회·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제기구다. UN 경제이사회 직속 5개 지역경제위원회 중 하나로서 아태지역의 경제재건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를 보좌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62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아태지역에 소재한 국제기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는 2010년 5월 송도 미추홀 타워에 처음 문을 열었고 이후 2013년 5월, 현재 G타워로 이전해 국제기구로서의 든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SCAP은 다자간 기구로서 두 개 나라 이상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분야로는 환경, 경제, 사회개발, 무역, 교통, 재해 등 환경과 사회 전반의 모든 이슈를 다룬다. 그중 가장 큰 영역 사업은 환경 영역이다. 2015년 UN은 새천년개발목표의 후속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발표하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이행목표를 도출했다.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자연환경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위 목표에 발맞춰 ESCAP은 현재 아태지역에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황사, 접경지역 자연 보존 등과 관련된 동북아환경영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태지역 내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업무를 병행한다. 몽골과 같은 상대적으로 국제 경제 흐름에 소외된 국가에 대해 무역 원활화 사업을 진행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특성에 맞춰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긴밀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다자간 협력 사업 외에도 자국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 중이다. 국제적인 교류를 희망하는 한국 기업이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 워크숍,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해주고 아태지역 협력에 관련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를 읽는 안목 필요

현재 모든 UN 국제기구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UN 공식 잡사이트(https://careers.un.org)에 접속하면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국제기구의 정보와 인원 모집 요강을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인턴십 프로그램이 2013년부터는 학부생까지 확대됐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좀 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UN의 인사방침 때문이다. ESCAP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은 국제세미나 등 각종 사업관련 통·번역과 사무관리 등 업무 보조를 하게 된다. 이곳에 취업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영어가 중요하다. 모든 업무가 영어로 진행되며 기본적인 라이팅 업무 역시 영문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다.

"많은 학생들이 ESCAP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 글로벌 업무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지원하고 일하게 될 영역에 대한 관심이다. 세계각지에서 많은 인턴들이 업무를 경험하지만 그에 걸맞은 목표가 없어 큰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UN 현안에 관련된 다양한 페이퍼를 미리 공부하고 익힌다면 단기간에 본인의 국제적 업무 소양을 기르는데 큰 도움일 될 것이다." ESCAP 남상민 부대표의 말이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마련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ESCAP에 대한 체험을 미리 해볼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ESCAP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 글로벌 업무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UN ESCAP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 지속가능한 개발(녹색성장, 에너지효율성)정보통신기술 및 재난위험 관리

- 설립일 : 2010. 05. 17
- 위치 : 송도국제도시 G-Tower 6~7층
- 전화번호 : +82 32 458 6600
- 홈페이지 : enea.unescap.org

INU New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NEWSLETTER Vol.68

'2015년 인천대를 빛낸, 인천대 人' 간담회 개최

'2015년 인천대를 빛낸 인천대 人' 간담회가 12월 8일 교수회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열정으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여 대외적으로 인천대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학생 및 지도교수 등 140여 명을 초청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준비됐다. ▲68일간 자전거로 미국을 횡단하며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린 중어중국학과 심용석 학생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인 독일 레드닷 어워드에서 winner를 수상한 경영학부 김범수 학생 ▲대한민국 SW 융합 해카톤 대회 대상을 수상한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노병언 학생 ▲한국은행 전국 통화경시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무역학부 강장호 학생 등이 참석했다. 최성을 총장은 "오늘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창조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지역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당당히 맞서는 인천대 人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SK 청년비상(飛上)' 주관기관 선정, 사업비 6억 확보

우리대학이 SK그룹이 시행하는 'SK 청년비상(飛上)' 프로그램 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 SK 청년비상 프로그램은 창업지원 인프라 및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창업교육, 인큐베이팅, 해외진출 등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층 창업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대학은 2년간 지원되는 6억 원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체험형 창업강좌 및 창업동아리 운영, 창업인프라 구축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률 69.6%, 인천지역 1위, 국·공립대 2위 올라

우리대학이 1월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를 통해 발표한 2015년 공시 대학취업률에서 69.6%를 기록했다. 우리대학의 이 같은 취업률은 인천지역 1위,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서울대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수도권 졸업생 3,000명 이상 주요 4년제 종합대학의 취업률을 보면 고려대(74.1%), 성균관대(73.7%), 연세대(72.3%), 서울대(71.2%), 인천대(69.6%), 인하대(69.4%) 등이다. 한편, 우리대학은 올해 해외취업률 증대를 목표로'청년 장보고 글로벌해외인턴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상하이, 칭따오, 웨이하이 등에 총 100여 명의 학생을 파견할 계획이다.
홍진배 국제교류원장은 "올해는 인차이나(인천-차이나) 프로젝트까지 병행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해외취업률 상승도 많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 협약 체결

우리대학 인문대학 및 문화대학원과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12월 17일 지역사 연구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상호협력 및 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문화 진흥 및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우리대학 대학(원)생들이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실습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천시립박물관은 대학(원)생들을 문화사업과 연구에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상호 이용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연구 과제를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기로 하였다.

동북아물류대학원, 태국 브라파대학 물류학부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동북아물류대학원(원장 여기태)과 태국 브라파대학교(총장 직무대리 Sompol Pongthai) 물류학부는 11월 9일 국제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양 대학은 협정에 따라 학생교환, 교수교환 및 상호 학문적 지원, 통합적 학위취득 프로그램 개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으며, 동북아물류대학원 여기태 원장은 "인천대와 브라파대학은 물류분야 연구에 강점을 가진 대학으로 양 대학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교환하고 사용하여 양국의 물류 최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창업지원단, 61명에 창업장학금 수여

창업지원단(단장 정영식)은 1월 6일 송도 미추홀캠퍼스 창업다락에서 2015년도 창업활동 우수생에 대한 창업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2015년 활발한 창업활동을 보인 인천세무고 김나형 학생 외 34명의 비즈쿨 학생과 인천대 디자인학부 장인수 학생 외 25명 등 총 61명에게 총 2,000만 원의 창업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비즈쿨 장학생 선발은 인천대 창업지원단과의 협약을 맺은 비즈쿨 담당교사 및 학교장의 추천으로 이루어졌으며, 인천대 장학생은 연간 창업관련 활동(경진대회, 동아리, 창업교육, 청년 창업) 등에서 고득점을 획득한 학생들을 창업지원단장의 평가에 의해 선발했다.

INU New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NEWSLETTER Vol.68

인천대학교, 2016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5.3대 1로 마감

2016학년도 정시모집(가/다군) 원서접수가 정원 외 포함 총 1,409명 모집에 7,444명이 지원해 평균 5.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주요 전형별 경쟁률을 보면, 〈일반학생〉 전형이 가·다 군에서 각각 4.7대 1(791명 모집), 6.1대1(462명 모집)을 기록했으며, 4년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다 군의 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19명 모집에 총 73명이 지원하여 3.8대 1로, 전년 3.4대 1보다 상승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가군 6.0대 1, 다군 7.5대 1) 전형은 작년 대비 상승했고, 농어촌학생(가군 4.8대 1, 다군 6.9대 1)이나 특성화고교출신자(가군 6.2대 1, 다군 5.5대 1)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은 전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경쟁률 상위 학과로는 가군 일반학생 전형에서는 공연예술학과(22.4대 1)가 최고를 기록했으며, 디자인학부(9.0대 1), 산업경영공학과(7.2대 1), 역사교육과(5.8대 1)가 그 뒤를 이었다. 다군 일반학생 전형에서는, 행정학과 9.7대 1로 가장 높았고, 정보통신공학과(8.2대 1), 정치외교학과(7.9대 1), 해양학과(7.8대 1) 등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 초청 특별 강연 개최

우리대학은 11월 25일(수) 롤프 마파엘(Rolf Mafael) 주한 독일대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했다. '독일, 1945년부터 3세대에 걸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는 "1945년 이후 독일이 걸어온 길을 반추하면서, 21세기의 독일, 한국과 독일의 관계, 한-유럽연합(EU) 관계, 독일통일 25주년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을 전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초청 특강 개최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는 11월 17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했다.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대강당에서 진행된 개최된 이날 특강에는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산학협력단,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산학협력단(단장 홍윤식)과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병원장 정영호)은 2월 3일(수) 인천대 산학협력단 및 인천대 가족회사 직원(직계가족 포함)을 위한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의료지원 업무협약은 기존의 업무협약 틀을 벗어나 약 900여개의 인천대 가족회사 직원(직계가족 포함)까지 확대하여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인천대 가족회사'에게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으로'인천대 가족회사' 직원(직계가족 포함)에게는 외래, 입원 공상, PET-MRI, 종합건강검진, 백신 접종, 장례식장 이용료에 대해 5~30%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됐다.

인천대학교 사랑나눔 교직원회, 사랑 나눔 자선음악회 개최

인천대학교 사랑나눔 교직원회는 12월 1일 저녁 송도캠퍼스 대강당에서 교직원 및 학생,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나눔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장정아 교수의 사회로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그동안 강의와 연구 틈틈이 연습한 20여명의 교수들과 방과 후 별도 시간을 내어 연습에 참여한 7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총 16곡의 음악을 연주했다. 음악회는 인천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INU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왈츠를 시작으로 INU 하모니와 함께하는 '거위의 꿈' 합창, 이재석 교수의 축시 낭독, 최정환 학생의 첼로 독주,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의 찬조공연, 김영관 교수 및 김민경 학생의 색소폰 연주, 교수와 학생 10여 명으로 구성된 INU 앙상블 연주, 변윤식, 이기영 교수 등 INU 남성중창, 김태균 학생의 피아노 독주, INU 하모니와 함께하는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2008년 인천지역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 시작된 사랑나눔 교직원회의 '사랑나눔 자선 음악회'는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인천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랑의 연탄나눔 실시

인천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인천대생협')은 12월 12일 인천 학익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인천대생협'은 직원 단합대회 경비 중 일부와 연탄나눔 행사의 기금모음('쿱이 장터 한마당')을 통하여 인천연탄은행의 후원금을 마련하였고, 생협직원, 인천대 축구부 및 재학생 등 80여 명은 남구 학익동 일대 소외계층에게 총2,600장(130만 원상당)의 연탄을 직접 구입하여 배달했으며,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서 지원받은 쌀 26포대(100만 원 상당)도 학익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사회봉사센터, '무료 영정사진 촬영' 재능 기부

사회봉사센터는 대학 사진동아리 '하양검정'학생 7명과 함께 1월 11일 인천 남구노인복지관(관장 이종원)과 연계하여 남구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영정사진 '일명 장수사진'을 찍어 액자에 담아 드리는 재능기부를 진행했다. 남구노인복지관 이종원 관장은 "2016년도 설날을 앞두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영정사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들께 너무나 좋은 명절 선물이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인천대와 인연이 되어 다양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연계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발전기금 **현황**

(2015년 11월 1일 ~ 2016년 1월 31일)

무통장 후원하기 농협 1325-01-000611 예금주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ARS 후원금 서비스 060-703-1212 (통화당 3천 원)

기부 현황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농협은행(주) 인천시청지점	기업	100,000,000
유선/인천직업전문학교	기업	50,000,000
와카이슈지	동문	10,000,000
김효찬/(주)대한시스템	기업	5,000,000
권영산	개인	2,000,000
변윤식	교원	1,500,000
임재완/유니벌유즈	기업	1,500,000
김영수/(주)백석개발 인천지점	기업	1,000,000
김지일/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	기업	1,000,000
남북경협아카데미10기	단체	1,000,000
인산회(명예교수 일동)	단체	1,000,000
포스코건설	기업	1,000,000
(주)시트론정보통신	기업	600,000
배양섭	교원	600,000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제36기 동문	동문	500,000
조중휘	교원	450,000
이정연(임소영)	개인	400,000
이종협	개인	350,000
(주)울인원시스템	기업	300,000
강현철	교원	300,000
구경헌	교원	300,000
김기웅	교원	300,000
김상현	동문	300,000
김유신/미림전력	기업	300,000
김장성	동문	300,000
박윤원/(주)온엔오프	기업	300,000
박정훈/(주)에스비에스	기업	300,000
손천택	교원	300,000
유정희/(주)JH에너지	기업	300,000
이갑영	교원	300,000
이군익	동문	300,000
이상동	직원	300,000
이성옥	동문	300,000
이순득/(주)진성엔텍	기업	300,000
이승민	동문	300,000
이은주	교원	300,000
이재성	동문	300,000
이정식/(주)한마	기업	300,000
이종열	교원	300,000
장태관/GVS(주)	기업	300,000
정광훈/유카스에너지	기업	300,000
최근영	동문	300,000
추성호	동문	300,000
홍필기	동문	300,000
황민식/해천이엔씨	기업	300,000
황현배	동문	300,000
한상혁	직원	210,000
박인호	교원	200,000
이재석	교원	200,000
(주)에이치픽쳐스	기업	150,000
김관호	교원	150,000
김교흥	동문	150,000
김병훈	교원	150,000
김숙진	동문	150,000
김승환	직원	150,00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김시석	동문	150,000
김환식	직원	150,000
김흥근	동문	150,000
소대수	동문	150,000
신원태	교원	150,000
심광흠	동문	150,000
유정흔	동문	150,000
윤용	동문	150,000
이숭열	직원	150,000
이종헌	동문	150,000
임승빈	직원	150,000
제희태	동문	150,000
노창근	동문	100,000
한민열	동문	100,000
한창원	동문	100,000
김규만	동문	90,000
김찬주	교원	90,000
안춘순	교원	90,000
우창기	교원	90,000
윤덕영	동문	90,000
윤영돈	교원	90,000
장인우	교원	90,000
한상철	교원	90,000
임순	교원	75,000
김보슬	동문	60,000
김정곤	교원	60,000
김현진	교원	60,000
박종석	직원	60,000
오복자/국제광고(전무홍)	동문	60,000
최명종	직원	60,000
최인한	동문	60,000
김시선	동문	50,000
권정희	직원	30,000
김동규	직원	30,000
김재철	동문	30,000
김종인	직원	30,000
김지훈	동문	30,000
김치용	동문	30,000
문종욱	동문	30,000
박일충	직원	30,000
박정연	직원	30,000
박정희	동문	30,000
박진구	동문	30,000
배가람	동문	30,000
서상범	직원	30,000
신천수	직원	30,000
안동찬	직원	30,000
유병순	동문	30,000
윤병선	동문	30,000
이병기	동문	30,000
이상봉	동문	30,000
이성호	동문	30,000
이애영	직원	30,000
이정희	직원	30,000
이종훈	동문	30,00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이진희	직원	30,000
임경님	개인	30,000
장소영	직원	30,000
최재혁	개인	30,000
한상길	동문	30,000
한현미	개인	30,000
허성희	직원	30,000
서재신	직원	20,000
윤희랑	동문	15,000
신한카드포인트	기타	3,064

우수리 현황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정경란	직원	26,050
김기만	직원	25,580
서종국	교원	25,400
경명진	직원	25,300
황태진	직원	25,180
여인철	교원	24,710
유재은	교원	24,700
안효진	교원	24,570
송월봉	교원	24,400
전동진	직원	24,340
손정숙	직원	24,010
안해균	직원	23,260
김성희	교원	23,180
고혜영	교원	23,010
김기준	교원	22,930
배순희	직원	22,310
이숭열	직원	22,000
박정훈	교원	21,900
우요섭	교원	21,790
공용득	직원	21,740
김익수	교원	21,280
김진석	직원	20,890
강연제	직원	20,840
신원태	교원	20,670
최일용	직원	20,600
홍수민	직원	20,520
이창연	교원	20,400
임정훈	교원	20,300
한상혁	직원	20,250
강상미	직원	20,200
신현주	교원	20,140
김동호	직원	20,030
이병하	교원	20,020
김상남	교원	19,750
황명환	교원	19,730
유종근	교원	19,690
이원경	교원	19,670
이선영	직원	19,630
김복영	교원	19,61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김정민	직원	19,540
김관식	직원	19,450
이건상	교원	19,440
전석희	교원	19,200
방동인	직원	19,160
안익태	직원	19,070
강치후	교원	19,020
이석기	직원	18,940
김상진	교원	18,860
오지은	교원	18,860
장서은	직원	18,750
김정아	직원	18,700
허성희	직원	18,700
송여숙	교원	18,670
이충우	직원	18,660
이지은	교원	18,300
장진주	직원	18,240
윤창근	직원	18,220
민홍기	교원	18,030
박시우	직원	18,030
주현태	교원	17,910
조명순	직원	17,900
김경아	교원	17,880
정영식	교원	17,880
김용민	교원	17,720
이진섭	직원	17,680
이영석	교원	17,590
전재철	직원	17,530
최인수	직원	17,420
이한영	교원	17,400
이나영	직원	17,340
최윤정	직원	17,270
변윤식	교원	17,250
김영주	직원	16,890
장소영	직원	16,890
윤세원	교원	16,870
이은직	교원	16,870
김광수	직원	16,850
박혜정	직원	16,760
김정기	직원	16,750
임병미	직원	16,630
강효현	직원	16,610
박재일	직원	16,540
황재현	직원	16,430
신미옥	직원	16,410
민철기	교원	16,400
전용재	직원	16,400
정영민	직원	16,380
김산정	직원	16,320
황미옥	교원	16,320
한양호	직원	16,300
장희경	직원	16,290
김태복	교원	16,27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김동규	직원	16,200
한종민	직원	16,200
김광열	직원	16,180
김정태	교원	16,160
김우일	교원	16,090
전찬기	교원	15,740
이영일	직원	15,630
김종호	직원	15,610
이종혁	직원	15,610
오윤희	교원	15,420
안승범	교원	15,360
김학만	직원	15,240
한승헌	직원	15,130
서상범	직원	15,100
최병심	직원	15,100
민문기	직원	15,070
김응철	교원	15,040
조사옥	교원	14,700
최재혁	개인	14,670
이진희	직원	14,660
최민경	교원	14,660
박상임	직원	14,630
윤춘화	직원	14,380
박성완	교원	14,170
최예선	직원	14,150
김재곤	교원	14,060
오은하	교원	14,010
박정승	직원	13,930
이상동	직원	13,930
양창호	교원	13,830
이황주	직원	13,770
민금홍	직원	13,690
임경환	교원	13,540
이연희	직원	13,370
김현우	직원	13,360
권정희	직원	13,240
박용호	교원	13,120
심인애	직원	13,120
강현옥	교원	13,070
김형기	직원	13,040
이시자	교원	12,960
최윤희	직원	12,920
최영미	교원	12,860
김창우	직원	12,820
우금순	직원	12,770
장현주	직원	12,690
전병준	직원	12,690
송원용	교원	12,660
김강우	교원	12,530
이윤정	교원	12,510
황영삼	교원	12,480
김순홍	교원	12,450
김은영	교원	12,45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설경자	직원	12,440
김준석	교원	12,430
권혁준	교원	12,420
김은선	직원	12,200
박형의	직원	12,180
고은희	직원	12,160
박인선	교원	12,130
차기율	교원	12,060
김선경	직원	11,800
김순옥	직원	11,760
박종찬	교원	11,680
안호선	교원	11,650
이찬식	교원	11,600
최성을	교원	11,430
김화순	교원	11,360
문옥미	직원	11,200
정옥경	교원	11,200
김청자	직원	10,970
이병관	교원	10,860
윤종구	직원	10,770
김형근	직원	10,670
황상순	교원	10,660
전동근	교원	10,430
양운근	교원	10,250
이창길	교원	10,170
고덕봉	직원	10,140
김영철	직원	10,120
조중휘	교원	10,020
정경찬	직원	9,750
김내현	교원	9,500
박미선	직원	9,290
채숙희	교원	9,230
조인구	교원	9,150
곽문선	교원	9,130
김정업	교원	8,990
신관수	교원	8,690
이승철	직원	8,680
조현우	교원	8,620
황선용	직원	8,420
방재한	직원	8,210
박종욱	교원	7,870
채진석	교원	7,870
노정호	직원	7,670
최재웅	직원	7,640
최병길	교원	7,590
유은정	교원	6,950
권정호	교원	6,150
조천순	직원	5,290
문은호	직원	5,270
홍선표	교원	5,200
우제대	직원	5,140
김평원	교원	3,400
조길수/이남영/조규현	직원	2,580

인천대학교 소식지 2016 겨울호 (제68호)

지역의 인재를 세계의 인재로 **국립인천대학교**

INCHEON NATIONAL UNIVERSITY
NEWSLETTER Vol.68

2016 Winter

FOCUS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다
SKETCH 나눔을 위한 착한 여행 – 네팔
INTERVIEW 인천대학교 더 큰 둥지를 향해

인천대학교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송도캠퍼스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제물포캠퍼스 22100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대길 319
미추홀캠퍼스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인천대학교 대외협력홍보팀 **Tel.** 032-835-9240 **Web.** www.inu.ac.kr